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3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8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과 인천전략 /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 장애인계 뉴스

1. 문화·예술계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2. 강북뉴욕치과, 저소득 시각장애인 치료비 지원
3.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여성들의 멋진 엄마되기 프로젝트 가동
4. 부산시, 중증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운행
5. 일산직업능력개발원, 국비지원 장애인훈련생 모집...시각장애 특화교육도 운영
6. TV수신료 면제,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복지서비스 누리고 계신가요?
7. 군포시, 시각장애인 위해 오디오북 무료배포

기획: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독자마당: 우리 궁 나들이 어떠세요? / 임은주(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7월 16일~7월 31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1)

~~~~~

포커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과 인천전략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저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태국 방콕에 소재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UN ESCAP)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수립을 위한 기술적 보고서 작성 및 통계자료분석을 위한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태장애인 10년’과 2013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실천과제인 인천전략의 수립을 위해 일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브레일 타임즈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아·태장애인 10년’이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우리나라 특히 평범한 일상을 사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에게는 낯선 용어입니다. ‘아·태장애인 10년’만큼이나 유엔 에스캡 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역시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이 두 가지와 ‘인천전략’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아·태장애인 10년이 결코 우리 장애인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면,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경제사회위원회”는 국제연합 즉 유엔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중의 하나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유네스코 (UNESCO)’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 이와 같이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엔 즉 국제연합 속에 설립되어 있는 기구들 중의 하나가 ‘경제사회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 한 가지는 이러한 기구들의 구성이 한국, 중국, 일본 같이 국제연합에 속해 있는 각국 정부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구들은 각기 회원국들이 결의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각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는데 국제연합 사무국의 수장이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경제사회위원회 업무를 관할하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저 역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대해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라고 부르지 않고 유엔 에스캡(UN ESCAP)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회원국 간 무역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경제협력, 둘째,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환경보호 및 친환경 자연개발에 관한 업무, 셋째, 빈곤퇴치·양성평등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개발업무, 넷째, 교통 및 통신 등 국가 간 기술교류에 관한 업무, 그리고 기타 국제협력입니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아·태장애인 10년은 사회개발국 사회통합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태장애인 10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993년부터 UN ESCAP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신장을 위해 이행해 오고 있는 지역 단위의 장애인 인권향상 프로젝트입니다. ‘10년’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제 2차 아태장애인 10년 기간에 속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제 3차 아·태장애인 10년이 시작됩니다.

‘아·태장애인 10년’에서 ‘아·태’를 빼보면 ‘장애인 10년’이 남는데 사실 유엔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후,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유엔 장애인 10년’이라는 국제적 장애인 인권 향상 프로젝트를 ‘세계행동계획(World Plan for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실시했습니다.

그 성과가 미미하였지만 그 성과를 이어 가고자 유엔 에스캡에서는 회원국 결의로 별도의

장애인 10년을 1993년에 선포했는데 이를 ‘아·태장애인 10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가 2002년에 종료했고 다시 ‘아·태장애인 10년’을 선포하여 2003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이어졌는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을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엔 장애인 10년이 1992년에 종료하고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20년간 이 지역단위 프로젝트를 이어왔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적인 교육 및 고용현실, 빈곤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해 2012년 제67차 에스캅 총회에서 2013년부터 다시 아·태장애인 10년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아·태장애인 10년을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태장애인 10년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단위 프로젝트인 만큼 지난 20년간의 성과가 눈부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이 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 장애범주의 확대를 비롯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한 장애인계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인권 수준의 향상을 약속했고 아·태장애인 10년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달성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과 그 달성목표를 명시한 인천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에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선포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 간 고위급회담이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 앞서 언급한 ‘인천전략’을 최종적으로 결의합니다. 인천전략은 2006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유엔이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장애인 인권 관련 지역단위 프로젝트인 만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비롯한 교육, 고용, 빈곤퇴치, 자연재해 등 재난상황에서의 안전보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간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즉, 인천전략에서는 장애인의 고용률을 하나의 목표로 명시하고 고용의 형태와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목표를 둘 예정입니다. 고용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목표와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전략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전략과 장애인의 삶이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 장애인계 뉴스

### 1. 문화·예술계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문화·예술계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문화예술계 대표 홈페이지 6곳을 선정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평균 60.7점이 나왔다. 특히 광주문화예술회관은 33.9점으로 평가 대상 중 가장 점수가 낮았는데 제시된 10개 과업 중 장애인 평가단이 모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다.

홈페이지별 총점을 보면, 예술의전당은 84.3점을 얻어 평가대상 중 가장 웹접근성 상태가 좋았으며, 다음으로 부산문화회관(73.6점), 세종문화회관(62.7점), 제주아트센터(58.1점), 국립극장(51.5점), 광주문화예술회관(33.9점) 순이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플래시 메인메뉴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화면읽기프로그램으로 메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메인메뉴의 키보드 포커스 이동순서도 비논리적인 데다 포커스가 하위메뉴로는 이동이 거의 되지 않아 최악이었다.

해당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위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제주아트센터는 해당 정보를 대체텍스트도 없이 이미지로만 제공해 역시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다.

회원가입에 있어서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메뉴를 화면읽기 프로그램으로 찾을 수 없었고, 국립극장은 키보드 포커스가 회원가입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며, 부산과 세종은 약관동의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없어 결국 회원가입에 실패했다.

또한 주메뉴, 하위메뉴, 본문 등 페이지의 주요 영역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사이트 이용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바로가기 링크는 제대로 구현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대부분 사이트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아 키보드 사용자는 제공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맹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 각각 1인씩 참여하였으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근거하여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 2. 강북뉴욕치과, 저소득 시각장애인 치료비 지원

강북뉴욕치과(원장 윤지영)는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위해 1천만 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제의료관광업체인 (주)엠아이에셋과 '시각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식'을 갖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강북뉴욕치과는 당시 사업에 참여한 협력치과 중 한 곳으로, 지금까지도 사업에 계속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치료비지원은 앞서 말한 협약식과는 별개로 강북뉴욕치과 윤지영 원장 개인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윤 원장은 치료비 할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임플란트와 같은 고가의 치료를 포기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약 1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 사례관리를 통해 치과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중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윤지영 원장은 "협약식을 통해 치과에 내원하는 시각장애인 중에 치아 상태가 심각한 분들이 많았는데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겠다고 하셨다. 그런 분들을 조금만 도와드리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치료가 시급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3.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여성들의 멋진 엄마되기 프로젝트 가동

“중도에 시각이란 엄청난 기능을 상실해서일까요? 미각과 후각이 좀 더 발달된 듯해요. 컵에 뜬 빵 만들기 순서에 지원을 했고 제게는 또 다른 행복이 시작 되었어요.” 시각장애인 주부 곽 모씨는 요즘 빵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시각장애로 인해 제빵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어렵기만 했다. 그러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제과교실을 알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듣는 일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현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증시각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더불어 제과, 도예 등 자기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장애인 주부들은 백화점, 마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자기개발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느라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바쁜 하루를 보낸다.

시각장애인 주부들도 비장애인 주부들처럼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지만, 시각장애로 인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교재나 수업방식에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각장애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중증여성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멋진 엄마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멋진 엄마되기 프로젝트'는 부모교육 및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은 웃음치료, 자아발견, 부모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지며, 역량강화프로그램에는 제과, 도예, 꽃꽂이 수업이 진행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증 여성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차례씩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전액 지원된다. 5월부터 진행된 상반기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종료됐으며, 8월말부터 하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10일 접수마감이지만 여석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독자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전화: 02-950-0183/담당: 김명환)으로 문의하면 된다.

### 4. 부산시, 중증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운행

부산에 사는 1·2급 시각장애인들은 앞으로 이동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8월 중 1·2급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콜' 소속 택시 200대를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전용으로 운행한다.

콜택시 요금은 두리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이 1800원이며, 422m 또는 102초당 100원이

부과된다. 탑승 시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부산콜(051-200-2020)로 예약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굳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특수 개조한 두리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며 "두리발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콜택시를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운행 대수와 이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 5. 일산직업능력개발원, 국비지원 장애인훈련생 모집...시각장애 특화교육도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장애인 국비훈련생을 모집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1년 과정(최대 2년)으로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수시입학·졸업).

훈련분야는 특화 과정과 양성과정으로 나뉘며 특화과정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수업이 진행된다. 이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교육에는 '웹 표준 개발, 웹 접근성 진단, 웹 콜 마케팅'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기초상담과 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교육비 및 식비, 기숙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내과, 정형외과, 치과 건강관리 등이 지원된다.

입학문의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재활상담팀(전화 031-910-0800)에서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을 기능 인력인으로 육성하는 장애인전문 직업훈련기관이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취업률 95%를 유지하고 있다.

## 6. TV수신료 면제,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복지서비스 누리고 계신가요?

시각장애인이라면 TV수신료 면제와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의 TV수신료 부담완화를 위해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 일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TV 수신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신청은 전화(KBS콜센터 : 1588-1801)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국번 없이 전화 1335)로 하면 된다.

장애아동재활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이나 영유아(만6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하며, 시각장애 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장애 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와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회당 치료서비스 제공시간은 기본 50분으로 가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는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지자체에서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전화 129)에서 가능하다.

## 7. 군포시, 시각장애인 위해 오디오북 무료배포

군포시가 시각장애인 등 독서 소외계층을 위해 ‘2012년 군포의 책’으로 선정된 ‘가시고백’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시는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오디오부 1천개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369명을 대상으로는 일일이 집으로 찾아가 직접 오디오북을 전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디오북 제작·배포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의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포 만들기, 책으로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책 읽는 군포’ 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말 ‘완득이’ 등의 작품을 쓴 김려령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가시고백>을 ‘2012 군포의 책’으로 선정·선포하고, 5개 시립도서관과 각종 공공시설에 도서를 비치해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

~~~~~

기획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여름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야외활동도 잦은 여름은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계절이기도 하다. 꼭 여름이 아니어도 다이어트라는 말은 늘 우리 곁을 맴돈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이어트관련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식생활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비만인구가 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비만율은 어떨까. 장애인 비만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장애인의 비만율은 39.5%로 비장애인의 34.7%보다 높고 특히 몸무게가 표준 체중보다 50% 이상 많이 나가는 고도비만의 비율은 장애인의 경우 4.6%로 비장애인의 3%에 비해 약 1.5배가량 된다.

신체활동실천율(주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 또한 장애인(남자 43.8%, 여자 28.1%)이 모두 비장애인(남자 53.0%, 여자 34.6%)에 비해 낮았다.

비만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관리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병율은 장애인이 75.9%(장애인실태조사, 2008)로 비장애인(42.7%)보다

높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2.3배), 심혈관질환(6.5배), 관절염(3.1배), 당뇨(3.9배), 만성통증(16.2배)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당뇨병 환자수가 2009년 32만2414명에 육박하고, 당뇨 치료에 1년 동안 4,646억여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외래내원일수는 비장애인에 비해 1.4배, 입원일수는 4.1배, 의료비는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점도 문제이다. 장애인의 18.9%가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의료기관 접근성에 있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첫째가 경제적인 부담이었고 둘째가 이동의 어려움이었다.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의 ‘장애인의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주관적 불건강 인지율이 비장애인은 8.7%인데 반해 장애인은 39.5%로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장애인들의 건강상태가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태가 미흡한 원인은 무엇일까.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박종혁 과장은 지난해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는 장애인 정책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의 대상은 거의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으로, 차상위계층 등 전체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단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둘째는 높은 의료보장 요구에 비해 낮은 수준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기입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활 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넷째는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이차장애 예방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접근도가 낮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예산의 부족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법들은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예방 등 건강 증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은 의료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무료 또는 적절한 가격으로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고,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과 의료관련 보험 가입의 차별 금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금하고 있다.

건강하게 일생을 보내고 싶은 욕구는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법률상에서도 장애인은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장애인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인 셈이다.

정부도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2012년도의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은 장애유형별 건강실태 조사 및 건강지표 모니터링, 장애인 만성질환 위험요인 조사연구,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이다.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지난 6월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장총은 장애인의 취약한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동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장애인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사회·환경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권리이자 의무인 건강권을 장애인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또한 장애계와 보건의료계의 협력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 독자마당

### 우리 궁 나들이 어떠세요?

#### 임은주(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2011년 3월. 바람이 몹시 불던 그날, 떨리는 마음과 설렘을 안고 시각장애인문화해설사 양성교육장으로 향했다. 전국 최초이고 그것도 시각장애인 문화해설사라는 의미 때문인지 개강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현대식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있는 서울에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덕수궁), 종묘 등 아름다운 우리 궁궐을 시각장애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 문화해설사로서 앞으로의 내 역할이었다.

우선 조선의 역사와 궁에 대한 이론교육을 받은 후, 직접 궁에 나가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며 궁을 체험하는 현장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의 평가를 통과를 하면 시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숨결이 담겨있는 경복궁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어야 하는지 생각해내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다. 모니터링단의 평가를 앞두고 다른 이가 듣는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해설을 해가며 시각장애인문화해설사 교육생들과 궁을 여러 차례 돌면서 동선을 짰다.

그렇게 모니터링단의 평가를 통과했고 드디어 시각장애인문화해설사 ID카드를 목에 걸게 되었다. 처음 해설을 할 때는 떨리고 겁도 났지만, 관람객들과 조선의 시간으로 들어가 역사속의 인물과 만나면서 궁이 현재의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생활 속에 여전히 숨 쉬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라는 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처음 해설을 했을 때 떨리고 겁도 났지만 손잡고 조선의 시간으로 들어가 역사속의 인물들과 만나면서 궁이 우리와 동떨어진 게 아니고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했다.

내가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들은 과연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문화해설사가 해

설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궁을 찾아올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지만 늘 곁에 있던 이유로 잊고 살았던 우리 궁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가 더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일단 와보신 분들은 우리 가까이에서 다른 공간과 시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느끼고 매우 좋아하셨다.

우리 궁은 각각이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경복궁은 조선의 얼굴로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대왕을 만날 수 있는 궁으로, 세계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찾을 만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창덕궁후원은 시간을 거슬러 조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으로 자연의 소리, 냄새, 바람을 느끼며 정조임금을 만날 수 있는 멋진 곳이다.

창경궁은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효로 지어진 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종이 세분의 대비를 위해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한때 창경원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을 놀이공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아름다운 숲길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걸으며 역사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해설을 하며 애정을 많이 갖게 된 곳으로 요즘은 창경궁에 대해 자랑을 많이 하고 있다.

종묘는 조선의 뿌리가 숨 쉬는 곳이다. 한 외국인이 종묘를 방문하고 한국에 이러한 건축물이 있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렇듯 찬란했던 영광과 시련을 간직한 궁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느끼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문화해설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갖고 있다. 말없이 긴 시간을 견디어온 궁들은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른 향기와 소리를 느끼게 해준다. 그 느낌을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여러분도 초록빛의 바람소리, 가느다란 새소리가 몇 백 년의 향취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궁에 오셔서 직접 만지고 듣고 느끼며 추억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7월 16일~7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7월 16일(월요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 참석, 유종필 관악구청장과의 오찬, 한시련 경기지부장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연합뉴스·머니투데이·에이블뉴스 등에는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관한 내용이 보도됐다.

다음 날인 17일(화요일)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임원진들과의 조찬, 제헌절 경축식 참석, 국회 본회의 참석, 민주통합당의원모임 '민주동행' 준비위원회 모임 참석, 한빛복지협회 회장과의 면담, 보건복지부 역대 장애인정책담당자들과의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충청투데이 등에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 추진 관련내용이 보도되었다.

18일(수요일)에는 국회 조찬기도회, 국회 본회의, 대선자금 수사촉구 및 정치검찰 공작수사 규탄대회,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에 연이어 참석했으며, 발달장애인지원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필립모리스 전무 및 이동열 금천구 지회장과의 면담을 나눈 후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만찬을 가졌다. 18일(수요일)에는 의약뉴스 등에 건강보험료 상한제도 폐지

환영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19일(목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모임인 ‘민주동행’ 운영위원회(‘민주동행’ 간사), 국회 본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의원 오찬,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선거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 및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면담을 가졌다.

20일(금요일)에는 사회복지 관련 간담회를 주재했으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21일(토요일)에는 아이팝뉴스 등에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산정부담 합리화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23일(월요일)에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과의 면담을 나누고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관련 정책세미나 주최 및 축사에 이어 기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24일(화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업무보고)에 참석했으며(이날 최동익 회장의 질의사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보험료 상한제도 개선 필요성,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의약품피해구제사업 도입 필요성,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카페인중독에 노출된 어린이들, 미숙아 인큐베이터 관리 사항, 장애인 편의제공, 장차법 및 편의증진법 상충 관련 내용) 회의 참석에 이어 효명장학생 격려를 위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등에는 고카페인 음료 어린이 무방비 노출 위험에 관한 최동익 의원의 질의내용이 보도됐다.

25일(수요일)에는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업무보고)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회의에서 최동익 회장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택 납부자 문제, 초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외, 건강보험의 부정확한 재정추계 및 정부지원금 과소지원, 불법 수의계약 공공기관 직원 처벌 필요,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의 안정성 확보 방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프로세스 개선 필요, 치료재료 대체청구 등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유통정보관리방안, 의료급여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개선방안 모색’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조선의원 모임에 참석했다. 이날 다양한 매체에서 최동익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이 보도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럴드경제에 국민연금 초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제외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약업신문에는 사회보험 선택 납부에 관한 내용이, 연합뉴스·노컷뉴스·아주경제에는 고카페인 음료 어린이 무방비 노출 위험에 대한 내용이, 연합뉴스·머니투데이 등에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추진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다음날인 26일(목요일)에는 노인복지 관련 간담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시도협회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30일(월요일)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에 이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민주통합당 의원모임인 ‘민주동행’ 운영위원회 오찬에 이어 민주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날 뉴시스, 연합뉴스 등에는 최동익 의원의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31일(화요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참석 및 당대표와 오찬을 갖는 것으로 7월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1)**

**1) ‘누래지다/누레지다’ 중 어느 것이 맞을까?**

-답: 누레지다

-해설: ‘누렁~’에 ‘~어’가 결합하면 ‘누레’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래지다/누레지다’, ‘뽀애지다/뿌예지다’, ‘하애지다/허예지다’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2) 생선을 ‘조리다와 졸이다’ 중 맞는 말은?**

-답: 조리다

-해설: ‘조리다’와 ‘졸이다’는 발음은 같지만 ‘조리다’는 고기나 생선에 양념을 넣어 국물을 바짝 끓인다는 뜻으로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하게 마음을 먹는다는 뜻의 ‘졸이다’와 구분된다. 다음의 말들도 이와 비슷한 예들이다.

-예시

- ㄱ. (배를) 주리다 / (인원을) 졸이다
- ㄴ. (다리가) 저리다 / (오이를) 절이다
- ㄷ. (옷을) 다리다 / (한약을) 달이다
- ㄹ. (편지를) 부치다 / (폴로 종이를) 붙이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